[UCI]I804:24011-200000233161

2006年 2月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學位論文

終助詞의 의미기능에 관한 비교 연구

— 「よ」「ね」「よね」을 中心으로 —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金 華 令

終助詞의 의미기능에 관한 비교 연구

— 「よ」「ね」「よね」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Semantic Functions of Sentence

- Final Particles「yo」「ne」「yone」-

*2006*年 *2*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本語敎育專攻

金 華 令

終助詞의 의미기능에 관한 비교 연구

指導教授　金 仁 炫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5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金　　華　　令

金華令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朴　青　國 인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金　仁　炫 인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金　熙　照 인

*2005*년　*12*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表目次 ii
ABSTRACT iii
第 1 章　序論 1
1-1. 研究目的 및 方法 1
第 2 章　終助詞 「よ」「ね」「よね」의 研究 4
2-1. 先行研究 4
2-2. 「よ」「ね」「よね」意味와 機能 9
2-2-1. 「よ」의 意味와 機能 9
2-2-2. 「ね」의 意味와 機能 15
2-2-3. 「よね」의 意味와 機能 23
2-2-3-1. 「よね1」의 考察 24
2-2-3-2. 「よね2」의 考察 27
2-2-3-3. 「よね1」과「よね2」의 意味 機能 比較 29
第 3 章 「よ」・「ね」와「よね」의 意味比較 34
3.1「よ」와「よね1」「よね2」 34
3.2「ね」와「よね1」「よね2」 37
第 4 章　結論 41
別紙 1 44
用例出典 46
參考文獻 47

表　目　次

〈表 1〉　「よ」의 意味機能 15
〈表 2〉　「ね」의 意味機能 23
〈表 3〉　「よね1」과「よね2」의 意味機能 차이 比較 33
〈表 4〉　「よ」와「よね1」・「よね2」의 意味機能 比較 37
〈表 5〉　「ね」와「よね1」・「よね2」의 意味機能 比較 40

ABSTRACT

A Study on the Semantic Function of Sentence

— based on the final particles 「yo」 「ne」 「yone」 —

Hwa-young Kim
Advisor : Prof. In-hyun Kim, Ph.D.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h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reconsidered about function of Japanese sentence Final Ending 「yo」 「ne」 and 「yone」 in conversation sentences concretely. They are commonly-used expression in Japanese as representative type of Japanese sentence final ending and they express communicational attitude when we have a dialog.

This study tried arrangement the meaning about this three type and the difference. with after words it is same.

First, in case of 「yo」, Basically the degree of speaker's recognition is higher than listeners. Being premised that A locutionary content is result of speaker's thinking, It is used in the case which is called a listener's attention . In this case, I could understand that The center of information is to speaker's side and 「yo」 can transmit information that speaker has to listener more positively.

Mostly the case of 「ne」 which buys a motion or a confirmation is many and It does prerequisite that listener is recognizing about the situation for speaker

to transmit.

But excepting this basic function, when speaker states an opinion or idea of oneself or that area. 「ne」 has a meaning to emphasis further the idea. Moreover, in case that speaker contacts with new information, It has a meaning to express knowledge.

「yone」 has a total meaning that speaker express judgment of oneself to listener. 「yone1」has a meaning to ask for confirmation or agreement in regard to contents to speak oneself. 「yone2」represents that contents to state are result of speaker's thinking.

Finally, when the three forms compare, 「yo」 makes an listener's attention awake positively in comparison with 「yone」. 「ne」 expresses that speaker has a conviction about oneself consideration result.

At above in this study, The particle of end-phase 「yo」 「ne」 「yone」 correlate with speaker's attitude and It compared and investigated their meaning difference in delivering the sentence.

The result, with the exception of the basic case to add 「yo」 「ne」 「yon e」, It confirmed different meaning functions And on the basis of the function, It makes an analysis delivery meaning that 「yone」 has.

第 *1* 章 序論

1-1. 研究目的 및 方法

日本語의 終助詞는 日本語를 學習할 때, 다수의 學習者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日本語의 終助詞는 文의 끝에서 그 文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지는가를 결정짓고, 話者의 다양한 감정들을 전달하는 역할로서 日本語에서 두드러지는 文法 형식이지만, 이들 형식은 굳이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話者가 말하고자 하는 文의 내용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終助詞는 文의 끝에 옴으로써 話者의 구체적인 의도와 그 내용의 세밀한 부분, 그리고 그 意味의 차이, 즉 상대의 同意를 구한다던가, 내용을 강조한다던가 하는 등, 그 다양한 意味의 차이들을 명확하게 규정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日本語의 終助詞를 간과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話者의 의도가 聽者에게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終助詞는 日本語 초기 學習 과정에서부터 體系的으로 學習하여 정확한 이해와 함께 실생활에서의 자연스러운 意思疏通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 外國語 敎育이 예전의 文法과 暗記 위주의 敎育에서 意思疏通 機能을 중시하는 敎育課程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구어체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口語體에서 중요한 요소인 文末 표현으로써의 終助詞의 역할이 보다 더 중시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終助詞가 실제로 넓은 範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그에 대한 學習은 다소 사전적인 意味나 用法으로만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어, 學習 이후 終助詞의 사용에서 學習者들이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日本人과의 실제 談話에서도 원만한 終助詞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本 論文에서는 終助詞 중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특히 口語體

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よ」와「ね」의 意味와 機能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 「よ」와「ね」가 합쳐진 「よね」가 어떤 意味와 機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고자한다.

「よ」와「ね」가 談話할 때, 話者의 독백이 아니고 聽者를 필요로 하고 있고, 전체적인 대화의 분위기와 意味 전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크며 어학적 硏究對象으로써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실제 日本語 學習 현장에서도, 學習者들이 「よ」와「ね」에 대해, 왜 「よ」나「ね」를 붙여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よ」를 쓰고 어떤 경우에 「ね」를 써야하는지, 그 쓰임의 구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學習者들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5年 9～10月에 걸쳐, 朝鮮大學校 晝間・夜間 日本語科 3・4學年 50名 및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本語敎育 專攻 大學院生 10名을 대상으로 「よ」「ね」「よ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別紙참조) 그 결과, 다수의 學習者들이 「よ」가 자연스러운 文에서는「ね」를 선택하고, 「ね」가 자연스러운 文에서는 오히려 「よ」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よね」에 대한 認知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よ」「ね」「よね」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정확히 認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또한 단순히 자신의 感으로만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本 論文에서는 「よ」・「ね」・「よね」의 각각의 정의 및 본질적인 意味와 機能에 대해 밝히고, 談話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本 論文에서는 현대 日本語에 있어서 終助詞의 意味와 機能의 쓰임을 연구범위로 하고, 用例는 文語體보다는 口語體에서의 보다 자연스러운 日本語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대 일본 드라마 시나리오에서 발췌하여 분석하였다.「よ」・「ね」・「よね」가 다른 終助詞들과 함께 쓰인 형식들은 본래의 意味와 機能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對象에서 제외하고,

또 「よ」・「ね」가 間投的으로 쓰인 경우도 終助詞와는 그 機能이 구별되므로, 對象에서 제외한다. 사용한 用例의 出處는 괄호를 사용해 표기하고 출처가 없는 것은 筆者의 作例임을 밝혀둔다.

第 2 章 終助詞 「よ」「ね」「よね」의 研究

2-1. 先行研究

終助詞 「よ」・「ね」의 정의와 위치, 그리고 「よ」・「ね」가 합쳐진 형태인 「よね」에 대한 先行研究를 검토해 보자.

지금까지 「よ」・「ね」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從來의 연구들인, 文의 성립과 관련된 文末의 진술적인 면이나 구문적 機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측면과 모달리티론과 情報의 영역이론에 중점을 두고있는 측면이 있다.

먼저 文末의 진술적인 면이나 구문적 機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입장을 보면 「よ」와「ね」는 보통 終助詞라는 문법적 범위에서 다루고 있다. 山田孝雄(1936)는 終助詞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 文句その終止にのみ用ゐらるゝものなり。(中略)文句の終末にのみ用ゐらるゝを特徴とす。[1)]

그리고 「よ」는「명령, 금지의 뜻을 확실하게 하는」終助詞로 보고,「ね」는 間投助詞로써「친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小倉肇(1985)도 山田孝雄와 마찬가지로 「よ」는 終助詞로 「ね」는 間投助詞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よ」[2)]
>
> 強く訴えたり、説き聞かせたりする意を表す。命令・依頼の気持を少し強める意を表す。

---

1) 山田孝雄(1936) 『日本文法概論』 宝文館 p.508

2) 小倉肇(1985) 「終助詞・間投助詞」 『研究資料日本文法-⑦助詞編(三) 助詞・助動詞辞典』 明治書院 p.242

呼びかけの意を表す。

「ね」[3]

軽く主張する意を表す。相手に同意を求めながら、軽い感動の意を表す。相手にたずね、返答をうながす意を表す。

또, 此島正年(1993)[4]은「終助詞는 文末에서 文을 종결짓는 文末 專用語」라고 정의하고,「よ」는 間投助詞로「呼びかけの意が強い」,「ね」는 終助詞로「他に対する願望を表す」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山田孝雄와 小倉肇, 此島正年에 의하면 「よ」와「ね」는 終助詞와 間投助詞로써 취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時枝誠記(1983)[5]는「感動を表わす助詞」로써「よ」와「ね」를 동일한 틀로 취급하고 있는 입장으로,「よ」는「感動 혹은 呼び掛け, 命令・禁止의 뜻을 강조한다」,「ね」는「二人稱 動詞의 未然形에 붙어서 그 動詞의 実現을 希望한다」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모두 「よ」와「ね」에 대해 조사로서의 분류나 文末의 진술적인 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よ」와「ね」의 세세한 意味나 用法의 특징, 그리고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는 모달리티론과 情報의 영역이론의 측면에서의「よ」와「ね」에 관한 考察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달리티론에서는 「전달태도의 모달리티」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よ」와「ね」가 대표적이다. 모달리티는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문법 개념이지만, 判斷・表現 주체의 주관적 측면의 표현이 고도로 문법화된 언어인 日本語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益岡隆志(1991)는 전달태도의 모달리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3) 小倉肇(1985) 前掲書 p.250
4) 此島正年(1993) 『助動詞・助詞概説』 桜楓社 p.p218-219
5) 時枝誠記(1983) 『日本文法文語編』 岩波書店 p.257 p.p262-263

伝達態度のモダリティは、表現類型のかかわりなく、 聞き手の対する話し手の文伝達の態度を示す働きをする。 伝達時における聞き手の内的世界に関する評価を表すと考えられる終助詞「ね」や「よ」は、 伝達態度のモダリティを代表する形式である。6)

益岡隆志(1991)는 이러한 전달태도의 모달리티라는 관점에서「よ」는「対立型の判断」을 나타내고 「ね」는「一致型の判断」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ね」と「よ」という形式が内在的意味として表すのは、 自分が有する知識や意向のあり方が聞き手が持っていると想定される知識や意向のあり方と一致する方向にあるのか、 それとも対立する方向にあるのかという点に関する話し手の判断である。 「ね」は一致する方向にあるとの判断、 すなわち、 「一致型の判断」とでも言うべきものを、一方「よ」は、 対立する方向にあるとの判断、 すなわち、 「対立型の判断」とでも言うべきものを、 それぞれ表現する。7)

그리고「話者」와「聴者」가 중심이었던 연구에「情報」의 측면이 부가된「情報의 영역이론」에서「よ」와「ね」의 意味 機能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泉子(200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話し手が聞き手に比べてより詳しい情報を持っていると判断した時「よ」を選び、逆に聞き手の方が同じ位かまたはより詳しい情報を持っていると考える時、情報自体に焦点を当てる「よ」を避けて「ね」を使う。「よ」はまだ相手が充分認識していない情報、話し手の方がより確実に握っている情報について相手に訴えるために用いられ、そのためまだ分かってくれないの、という切ない気持を伝えることにもなる。実際の会話ことばでは、話し手は「ね」と「よ」を使い分け、 それを混用することで微妙な感情を伝え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ね」が頻繁に用いられる会話部分と「よ」が頻繁に用いられる

6) 益岡隆志(1991) 『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p.38
7) 上掲書 p.102

会話部分では、 相手に向ける訴え方が異なってくる[8)]

즉, 話者쪽이 보다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よ」를 사용하고, 聴者쪽이 같거나 보다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ね」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陣常好(1987)[9)]는 종조사의 정의를 우선 話者와 聴者와의 인식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文接辭로 정의 내리고 그 중「よ」와「ね」에 대해, 각각「よ」는 話者쪽이 聴者보다 인식의 정도가 훨씬 높고, 또는 聴者에게 있어서, 그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話者가 생각하여 聴者에게 전달하는 文에 붙고,「ね」는 聴者쪽이 인식의 정도가 높다고 話者가 생각하는 정보에 대해 聴者의 인식을 통해서 話者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文에 붙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よ」와「ね」는 話者와 聴者의 인식의 차이를 메우는 点에서 대립적이라고 논하고 있다.

森山卓郎(1989)도 終助詞 「ね」에 관해서 주목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發話 내용과 관련된 情報가 聴者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文「聴者情報配慮文」과 聴者에게 해당 내용에 관여하는 情報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文「聴者情報非配慮文」으로 나누고 情報配慮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平叙文におけるネの意味とは当核発話に関する情報が聞き手にも存在するという、 話し手の仮定の表示ー聞き手情報配慮の表示ーであると思われる。[10)]

즉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聴者에게 그 때의 話題에 관한 情報가 있

8) 泉子・K・メイナード(2001) 「日本語文法と感情の接点ーテレビドラマに会話分析を応用してー」『日本語文法』1巻1号 2001年9月 日本語文法学会 くろしお出版 p. 106
9) 陳常好(1987) 「終助詞ー話し手と聞き手の認識のギャップをうめるための文接辞ー」 『日本語学』10-6 明治書院 p.94
10) 森山卓郎(1989)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聞き手情報-聞き手情報配慮非配慮の理論-」『日本語の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p.107

는가 없는가를 判斷하고, 그것에 의해 聽者에게 다른 형태의 文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또 聽者에게 情報가 있다고 判斷했을 때에는 文에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이 附加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よ」와 「ね」의 共起형태인「よね」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蓮沼昭子(1992)[11]는 「よね」의 用法 特性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よね」の確認用法としては、<相互了解の形成確認>と<共通認識の喚起>の二つがあった。このうち、「よね」に固有なのは、前者の用法で、後者の用法はその派生として分析可能なものである。(中略)<相互了解の形成確認>の用法を、他から区別する本質的な相違点は、この用法では、聞き手ばかりでなく話し手における知識の形成がかかわるという点である。これに対して、<共通認識の喚起>や<認識形成の要請><推量確認>の用法では、話し手はあらかじめ自分なりの認識をもっており、聞き手に対してその共有や知識の形成を求めたり、自分の判断について聞き手の承認を求めるといったプロセスの上にこれらの用法は成立している。

野田惠子(1993)은 口語體에 있어서 「よね」의 機能을 確認하면서, 「よね」를「演述型, 情意表出型, 疑問型, 訴え型」의「4가지 표현유형」에 따라 考察하였다. 그 결과 「よね」는「항상 話者의 일치형의 가정을 나타낼 때만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終助詞의 임의사용에 관한 실제 조사를 통하여 실제 發話 시에는 聽者의 知識이나 감정의 대립을 굳이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聽者와의 一體化를 지향해서 「ね」가 사용되며, 일치형의 가정을 더욱 명확히 표현하고자 할 때 「よね」가 사용되어진다고 했다.[12]

---

11) 仁田義雄(1995) 「 蓮沼昭子- 対話における確認行為 -」 『複文の研究(下)』 くろしお出版 p.402

12) 野田恵子(1993) 「終助詞「ね」と「よ」の機能-「よね」と重なる場合」 『言語文化と日本語教育』6 お茶の水女子大学 재인용

본고는 上記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ね」와「よ」그리고 「よね」의 機能과 用法을 考察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으나, 그 중 發話할 때, 話者의 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用例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 파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 「よ」「ね」「よね」의 意味와 機能

지금까지 「よ」「ね」에 대한 연구는 兩者가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1) これ、おいしいですよ。
(2) 来れ、おいしいですね。

(1)(2)의 경우 「おいしい」라는 같은 命題에 대해서 「よ」는 聽者가 認識하지 못하고 있다고 判斷하여, 話者가 「おいしい」하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ね」는 話者와 聽者 모두 「おいしい」하다는 사실을 이미 共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よ」는 兩者의 지식이 다른 對立을 나타내고, 「ね」는 兩者의 지식이 一致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從來의 연구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よ」와 「ね」가 합쳐진 「よね」에 대해서도 解明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よ」「ね」의 意味機能에 대해 考察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よね」의 意味機能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2-2-1. 「よ」의 意味와 機能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よ」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話者가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聴者에게 그 사항을 전달할 때에 사용되어진다는 연구가 일반적이다.

(3) 久利生 : でもサラ金にてを出した人、いましたよ。
島　　野 : そんなこと知らなかった。
久利生 : 先生がそう仕向けたんじゃないんですか。　　(HERO)

(4) 久利生 : 来ないの?
雨　宮 : たぶん。
久利生 : たぶん?
雨　宮 : 間違いなく。
久利生 : 俺、嫌われてんのかな。
雨　宮 : もともとそういう人なんですよ。 みんな好き勝手やってる。
(HERO)

(5) 欧　介 : 東京湾もけっこううまい魚が釣れるんですよ。
桜　子 : ああ、 そうなんですか。 釣りがご趣味なんですか。 (やまと)

(6) 東　城 : 和、 和美さんの?
父 : そうです。 和美の父親ですよ。 私が。 あんたにいいようにだまされた桜井和美の父親ですよ。 私が。 (バ)

(3)에서 話者인 久利生는 자신에게 돈을 주기 위해 サラ金에까지 손을 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聴者 島野에게 그 사실에 대해 전달하고 있다. (4)에서는 久利生의 신입 검사 환영회가 있는 날인데, 雨宮를 제외하고 아무도 오지 않자, 처음이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久利生에게 雨宮는 원래 자신들 좋을대로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5)와 (6)도

마찬가지로, (5)에서는 話者가 東京만에도 맛좋은 생선이 많이 잡힌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聴者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있고, (6)은 話者 자신이 和美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聴者에게 알리면서 강조하고 있다. (3)-(6)의 경우에 있어서「よ」는 聴者가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話者의 知識이나 情報를 전달하거나 話者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령문에서의 「よ」의 역할은 어떠할까.

上野(1972)[13]는「命令文に「よ」が用いられた場合は「よ」を付加しない命令文より調子が弱くなる」라며 命令文에서의 「よ」는 그 효과를 약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益岡(1991)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7) ジュンが行くよ。[14]

(8) すぐ行けよ。

위의 예문을 들고 益岡(1991)은「確かに、同じように「よ」が付加されていても、(7)の場合は「よ」が表現を強め、逆に(8)の場合は表現をむしろ弱めるように感じられる。表面的な記述としては、これでよいのかもしれないが、そうなると、「よ」の働きに対して統一的な説明が与えられないことになってしまう」라고 지적하고,「よ」에 의해 命令의 효과가 약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강해지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9) a. 美知：どっちにしろ休養が必要なの。光さんには。人の言うこと、聞きなさい。

b. 美知：どっちにしろ休養が必要なの。光さんには。人の言うこと、聞きなさいよ。

(バ)

(10) a. 父 ：これ、悪いが、これ、ちゃんと着て行ってくれ。

b. 父 ：これ、悪いが、これ、ちゃんと着て行ってくれよ。 (バ)

---

13) 上野田鶴子(1972) 「終助詞とその周辺」 『日本語教育』17 日本語教育学会 p.73

14) 益岡隆志(1991) 前掲書 p.93

예문 (9)(10) 역시 命令文에 「よ」가 사용된 경우이다. 확실히 (9b)는「よ」가 부가됨으로서, 命令의 효과가 좀더 강하게 느껴지지만 (10)에서는 (10a)는 話者가 일방적으로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반해, (10b)는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듯한 느낌으로 (10a)에 비해 命令의 효과가 누그러진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命令文에 사용된 「よ」는 命令의 强弱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 또「よ」가 話者의 知識, 情報를 전달하거나 강조한다고 하는 從來의 연구로는, 「よ」가 附加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機能의 차이점을 통일적으로 설명하기에 불충분하게 된다.

또 白川(1992)[15] 역시 從來의 해석을 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 どんなとき「よ」が付加され、どんなとき付加されないかということは、「情報・判断の一致・不一致」「知識や意向のあり方が一致する方向か、対立する方向か」といった原理だけでは説明できず、別の要因によって決定されると考えざるを得ない。第二に、上の説明では、「ね」と「よ」とが共起した場合に、決定的な矛盾をきたす。「あの先生、いい先生だよね」のように、「ね」と「よ」は、しばしば共起する。同一の文について、「聞き手と話し手の情報、判断」が「一致し」かつ「食い違う」というのではおかしい。また、「自分が有する知識や意向の在り方が聞き手が持っていると想定される知識や意向の在り方と一致し」かつ、「対立する方向にある」ということもありえない。

즉, 「よ」와「ね」를「対立」과「一致」라고 보는 從來의 연구로는 「よね」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聞き手ー話し手の情報・判断という点に関して「ね」と「よ」とが正反対の性質を持つとするならば、「よ」が駄目ならば、それと正反対の性質を持った「ね」ならば

15) 白川博之(1992) 「終助詞「よ」の機能」 『日本語教育』77 日本語教育学会 pp.37-38

OKということになってもよさそうである。ところが、事実は「ね」でもやはり駄目である。このことは、「ね」と「よ」を同じカテゴリー内で相互に対立する項として捉える分析が不適切なことを示唆している。[16]

그리고 또 위와 같이,「ね」와「よ」가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면, 「よ」가 안 되는 경우에「ね」로 대치할 수 있어야하는데, 그 경우에 「ね」도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ね」와「よ」를「同じカテゴリ」내에서 相互對立 하는 項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よ」에 대해「「よ」は、それが付加された文の発話が聞き手に向けられていることを、ことさら表明する」라며, 「よ」의 機能을 一般化하고 있다.

泉子(2001)[17] 또한「「よ」は従来「自分の判断を一方的に相手に押しつける」終助詞と説明され、その文法上の意味は話し手と相手の感情関係とは直接結び付けられないままになっていた」라고 지적하고, 「「よ」の使用・非使用は、相手に自分の気持ちをどのようにアピールするかという相手と自分の感情操作をひとつの動機と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話者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부분에 「よ」를 사용하여, 강하게 직접「アピール」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よ」의 機能을「話者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발화 내용을 강하게 アピール한다」,「発話が聞き手に向けられていることを、ことさら表明する」라는 分析에 근거하여 그 機能을 살펴보겠다.

(11) a. 酒が飲みたい![18]

b. 酒が飲みたいよ!

16) 白川博之(1992) 前掲書 p.42
17) 泉子・K・メイナード(2001) 前掲書 p.109
18) 上掲書 p.43

(11a)는 希望의 文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文이 아닌,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文이지만, (11b)처럼「よ」가 부가되면,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하는,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發話로 바뀌게 된다. 원래는「聞き手めあて」가 아닌 文을, 聽者에게 강하게 アピール하면서 聽者의 주의를 끌고 있으며,「聞き手めあて」의 文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12) a. じゃあ、当直、往って来る。

b. じゃあ、当直、往って来るよ。　　(やまと)

(12)에서도 (12a)에 비해 (12b)는「よ」가 부가됨으로서, 자신의 發話 내용을 좀더 강하게 アピール하면서 聽者의 주의를 끌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よ」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의해 (9)(10)과 같이 命令文에「よ」가 附加된 형태에 대한 차이를 해명할 수 있게 된다. 즉, 命令文에 있어서의「よ」의 附加여부는 命令효과의 强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發話를 聽者를 향해 강하게 アピール하면서 聽者를 향한 發話를 더욱더 확실하게 표출하는데 관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에서 白川(1992)[19]에 의한「「よ」は、それが付加された文の発話が聞き手に向けられていることを、ことさら表明する」라는 분석과 泉子(2001)[20]에 의한「強く直接アピールして語りかけたい部分でもあるが、その部分には「よ」を用いる」라는 분석에 근거하여 「よ」의 意味機能을 검토한 결과, 「よ」에는 다음과 같은 機能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9) 白川博之(1992)　前掲書　p.42
20) 泉子・K・メイナード(2001)　前掲書　p.108

〈表 1〉「よ」의 意味機能

	意味機能
「よ」	話者가 자신이 말하고 싶은 發話 內容을 강하게 アピール하며, 聽者를 향한 그 發話를 더욱더 확실하게 表出한다.

2-2-2. 「ね」의 意味와 機能

「ね」의 일반적인 機能은 話者가 전달하려는 發話에 관한 정보가 聽者에게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鄭 相哲(1995)[21]은 다음과 같이「ね」를 구분하고 있다.

> 従来、確認要求として一括されてきたものであるが、少し違いがあるように思われる。つまり、当該内容の情報量において、話し手より聞き手が優位にあると見込まれるか、同等の関係にあると見込まれるか、という仮定の違いである。前者の場合は、情報的に優位にあると思われる聞き手に聞き手情報を確認するニュアンスを持つので、「確認要求」と仮称する。一方後者の場合は、情報的に同等の関係にあると思われる聞き手に同意を求めるニュアンスを持つので、「同意要求」と仮称する。

情報量에 따라서「ね」의 機能을「確認要求」와「同意要求」로 분류하고 있

21) 鄭 相哲(1995) 「ネトダロウジャナイカ-確認要求型式-」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上)』 くろしお出版 p.264

는 것이다. 그럼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13) 守男 : あ。 おはようございます。 今朝も冷えますね。

弥生 : あ。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あのう。。。 (FOR)

(14) 秘書 : 非常識な検事ですね。

代議士 : いたんじは叩かれる。かつての俺と一緒だ。 (HERO)

(15) 季里 : おめでとう。おめでとう。種類が違う人間でも幸せになるんだね。

有川 : そうだね。 (バ)

(16) 欧介 : 二度とあなたの前には現れません。

桜子 : そうしてください。

欧介 : そうします。

桜子 : それじゃ、もうお会いすることもありませんね。 (やまと)

예문 (13)에서 날씨가 차다는 것은 話者와 聽者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話者는 聽者와 자신의 생각이 당연히 일치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14)는 국회의원에게 와서 항의를 하고 돌아간 검사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話者는 聽者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공감을 바라고 있다. (15)에서도 話者는 聽者에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聽者 역시 동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6)은 話者인 桜子가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欧介에게 그렇다면, 앞으로는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ね」는 앞에서 鄭 相哲(1995)이 설명한 바와 같이「同意要求」의 機能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17) 弥生 ：ああ。あ、それ、猫の名前、書いてしまいまして。家族同様のものですから。

社長 ： 本当にお一人なんですね。

弥生 ：はい。　　(FOR)

(18) 久利生 ： 朝の9時から会議があった2月の6日も車だったんですね。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おかしいんですよ。2月の6日に、この日、車がここに到着してんのって、朝の9時10分なんですよ。　　(HERO)

(19) 久利生 ： あなたはそれを知った上で、彼を追い詰めちゃったんですね。

矢 口 ： 言いがかりも甚だしいよ。　　(HERO)

(20) 若葉 ： おいくらですか。

欧介 ：いいです。 サービスです。

若葉 ： あのう、またお魚買いに来てもいいですか。

欧介 ：どうぞ、いつでも。若葉さん、お魚好きなんですね。

若葉 ：はい、大好きです。　　(やまと)

예문 (17)에서는 話者가 상대방에게 혼자라는 사실에 대해 그것을 되묻고 있는 장면이다. (18)에서 검사인 久利生는 상대에게 아침 9시에 회의가 있었던 2月 6日, 차로 출근했다고 말했던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구하고 있다. (19)에서도 久利生는 聴者인 矢口에게 모든 사실을 알고도 범인이 아니었던 남자를 추궁한 일에 대해 확인을 구하고 있다. (20) 역시 欧介가 若葉에게 생선을 좋아하느냐는 사실에 대해「ね」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겠다. (17)-(20)의 경우 話者는 聴者도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그것을 상대방에게 確認하는 기분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ね」는 鄭 相哲(1995)이 말하는「確認要求」의 機能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ね」의 이 두 가지 用法을 구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鄭 相哲(1995)[22]는 「応答の仕方」에서 일단 구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 このように応答の仕方が分類の根拠になるのは、ネが要求表現だからである。つまり、確認要求の用法がYes-No疑問文のカと同様に、聞き手の情報を要求する表現なので、話し手の期待する情報が聞き手の応答に具現されるからである。一方、同意要求のネは聞き手の情報を要求するものではなく、単に同意を求めているので、同意表示のネは付けた応答は自然である。

즉,「同意要求」의「ね」에 있어서는, 話者가 聴者의 동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聴者의 應答述語에 同意表示를 나타내는「ね」를 붙여주었을 때 자연스럽고, 반면「確認要求」의「ね」는 話者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聴者의 情報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同意表示를 나타내는「ね」를 붙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13)‘ 守男 ： あ。 おはようございます。 今朝も冷えますね。
　　弥生 ： あ。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あのう。。。　　(FOR)

(14)‘ 秘書 ： 非常識な検事ですね。
　　代議士 ： いたんじは叩かれる。かつての俺と一緒だ。　(HERO)

(15)‘ 季里 ： おめでとう。おめでとう。種類が違う人間でも幸せになるんだね。
　　有川 ： そうだね。　　(バ)

(16)‘ 欧介 ： 二度とあなたの前には現れません。
　　桜子 ： そうしてください。

22) 鄭 相哲(1995)　前掲書　p.265

欧介 ： そうします。

桜子 ： それじゃ、もうお会いすることもありませんね。　　（やまと）

(17)‘ 弥生 ：ああ。 あ、 それ、 猫の名前、 書いてしまいまして。 家族同様のものですから。

社長 ： 本当にお一人なんですね。

弥生 ： はい。　　（FOR）

(18)‘ 久利生 ： 朝の9時から会議があった2月の6日も車だったんですね。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おかしいんですよ。2月の6日に、この日、車がここに到着してんのって、朝の9時10分なんですよ。　　（HERO）

(19)‘ 久利生 ： あなたはそれを知った上で、彼を追い詰めちゃったんですね。

矢 口 ： 言いがかりも甚だしいよ。　　（HERO）

(20)‘ 若葉 ： おいくらですか。

欧介 ： いいです。 サービスです。

若葉 ： あのう、またお魚買いに来てもいいですか。

欧介 ： どうぞ、いつでも。若葉さん、お魚好きなんですね。

若葉 ： はい、大好きです。　　（やまと）

예문 (13)‘—(20)’는 앞에서 살펴본 예문들로, (13)‘-(16)′는 「同意要求」에 해당하고, (17)’-(20)′는 「確認要求」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聴者의 應答 부분에 同意表示를 나타내는「ね」를 부가하여「そうですね」라고 應答한다고 가정해 보자. 예문 (13)‘는「今朝も冷えますね」라는 話者의 發話에「そうですね」라고 應答해도 자연스러운 談話가 가능하다. 예문 (14)′-(16)’도 마찬가지로 (14)‘에서「非常識な検事ですね」라는 話者의 發話에「そうですね」라고 應答한다

해도 별 무리 없이 자연스럽다. (15)'는 예문 자체에서 聴者가「そうだね」라고 應答하고 있고, (16)'에서도 話者의 發話에「そうですね」라고 대답한다고 했을 때 상대에게 동의를 하는 의미로서 자연스러운 談話가 이루어진다.

다음 예문 (17)'의 경우「本当にお一人なんですね」라는 聴者의 어떠한 情報를 확인 하고자 하는 話者의 發話에,「そうですね」라고 應答한다면 마치 聴者 자신에 관한 사항이 마치 자신이 아닌 남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되어버려, 談話가 부자연스러워 지게 되는 것이다. 예문 (18)'에서도 話者는 聴者에게 2月 6日 아침 자가용으로 출근했냐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일 「そうですね」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이 역시 자신의 情報가 他人의 情報처럼 되어버리므로, 이 경우「ね」를 부가하지 않은「そうです」쪽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다. 예문 (19)'에서도 話者인 久利生는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세운 일을 聴者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만일 聴者가 인정한다고 했을 때, 위와 같은 이유에서「そうですね」보다는「そうです」라고 해야 어색하지 않는 談話가 될 것이다. 예문 (20)'에서도 聴者 若葉는「はい、大好きです」라고 대답하고 있다. 만일「大好きですね」라고 했을 경우, 오히려 자신의 情報에 관해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버릴 것이다.　이상으로 앞에서 말한「同意要求」의「ね」에 있어서는, 聴者의 應答述語에 同意表示를 나타내는「ね」를 붙여주었을 때 자연스럽고, 반면「確認要求」의「ね」는, 同意表示를 나타내는「ね」를 붙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ね」의「同意要求」·「確認要求」의 機能과 그 機能의 구별에 관한「応答の仕方」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는 어떠한지 생각해보자.

(21) イサム：なあ、お前。なんで最近携帯、つながらないんだよ。

真 生：最近、金欠でさ、お金、払わなかったら、本当に止まるんだね。金、払わないと。　　(神様)

(22) 久利生 ： そうじゃない。 プロのそういう売る子がいるってこと。

容疑者 ： そうそう。give&take。

久利生 ： でも。俺はやっぱ、あれだな。素人物がいいね。 (HERO)

(23) 父 ： 戻せよ!

卓 ： なんでよ、父さん。

父 ： これはお姉ちゃんの分だよ。ね、卵は栄養だから。

和美 ： お父さん。

卓 ： そうか。二人分だもんね。 (バ)

(24) 和美 ： ありがとう。なんかうれしいもんだね。親のこと褒めてもらえるのって。

薫 ： ああ、そういうもん?俺の母親なんてさ、石、投げられることあっても、褒められることなんかないもんな。 (バ)

(21)에서 真生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핸드폰이 중지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중지된다며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는 話者 자신의 영역에 관한 것으로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聴者에게 어떤 확인이나 동의를 기대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이다. (22)에서 久利生은 자신은 素人物가 좋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상대방에게 그것에 대한 확인이나 동의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23)도 卵를 욕심내는 卓에게 父는 현재 임신중인 누나 和美에게 돌려주며 和美의 건강 상태를 챙겨준다. 그리고 卓는 누나 和美가 임신 중이므로, 두 사람 分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24)에서 和美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칭찬을 받게 되어 기쁘다는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을 뿐, 자신이 기쁜 사실에 대해 聴者에게 어떤 반응이나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ね」는 從來의 「確認要求」나 「同意要求」의 機能을 나타내고 있는 「ね」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話者가 자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등 단순한 話者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25) 欧 介：い、 以外だな。 あ、 刺身の醤油、 小皿にとぼとぼ入れる人、 いるでしょう。 あれ、 いやですよね。 あれじゃ、 魚の味がわかんなくなっちゃうし。 小皿に残った醤油ももったいないし。 あなたは、 絶対にとぼとぼ派だと思ったけど、 違うんですね。 以外に堅実なんだ。 (やまと)

(26) 桜子：ええ、欧介さんって、本当にグルメなんですね。いつかなにかの本で読んだことがあるわ。本物のグルメは、自分で取ったうさぎやカモを自分の手でさばいて食べるって。 (やまと)

(27) イサム：ああ、SS席。なに、これ。一万もするんだ。
真 生：ちょっと丁寧に扱ってよ。超大事なチケットなんだから。
イサム：でも一晩に一万か。物好きいるもんだね。 (神様)

예문 (25)-(27)에서의「ね」역시 「同意要求」나 「確認要求」의「ね」로는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이다. (25)는 欧介가 식사 중 桜子가 간장그릇에 간장을 조금만 붓는 모습을 보고, 평소 허영덩어리인 桜子의 堅實한 의외의 모습에 놀라하는 장면이다. 즉 欧介는 그 순간 알게된 사실에 대한 것을「ね」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6)에서도 桜子는 欧介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낚시를 해서 잡은 생선을 직접 요리해주겠다는 欧介가 미식가라는 새로운 사실을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27)에서 イサム는 단지 하룻밤에 1万円이나 하는 비싼 티켓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알게 된다.

따라서 話者가 어떤 새로운 사실에 접하거나 發話 순간에 알게된 사실에 대해서도「ね」가 附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ね」의 意味機能에 대해 검토한 결과, 「ね」에는 다음과 같은 機能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表 2〉「ね」의 意味機能

	意味機能
「ね」	發話 內容에 대해 話者가 聽者에게 확인을 要求함
	發話 內容에 대해 話者가 聽者에게 동의를 要求함
	發話 內容에 대해 話者의 意思를 表明함
	話者가 發話 순간 알게된 사실을 表出함

2-2-3. 「よね」의 意味와 機能

앞 절에서「よ」와「ね」각각의 意味機能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よね」가 어떠한 意味와 機能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高大坤(2004)[23]은「よね」를「よね1」과「よね2」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화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발화가 화자 자신의 판단, 사고의 결과임을 나타낸다라는 것이다. 이 공통성이야말로 「よね」의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차이점은 청자에 대한 반응요구의 유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자의 반응을 요구하면 (33)(よね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과 같고, 요구하지 않으면 (35)(よね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결국 「ね」의 성질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지어 본다.」

그리고 高大坤(2004)[24]은 「よね1」은 「확인, 동의 요구」이고, 「よね2」는 「화자의 사고, 판단표명」이라고 그 機能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高大坤(2004)의「よね」의 분류에 근거하여, 「よね」를 「よね1」과「よね2」로 나누고, 兩者의 意味機能을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2-2-3-1. 「よね1」의 考察

먼저 「확인, 동의 요구」를 나타낸다고 하는「よね1」의 意味機能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8) 男 1 : あのう、 生まれた時からずっとそんなにお美しいんですか。

---

23) 高大坤(2004) 「종조사「ね」「よ」의 기본적인 기능」 『漢陽日本學』제11집・12집 漢陽日本學會 p. 122

24) 高大坤(2004) 前揭書 p.124

男 2 ： 当たり前だよ。だから、スッチーになったんですよね。

桜子 ： あ、どうぞ。　　（やまと）

(29) 父 ：（手紙で）「親不孝娘へ。こういうの、作れるもんなら作ってみろ。」

和美 ： 父さん。これ、父さんが母さんに贈った結婚指輪よね。

美知 ： そう。姉さん、いつもしてたよね。　　（バ）

(30) 雨宮 ： 今日は、青森から直接来られたんですよね。

久利生：なんで、あ、なに? あ、服? 俺、いつもこんな感じだよ。ほら、これ、ついてるでよう。　　（HERO）

(31) 雨宮：でも、ちゃんと目撃者がいるんですよ。昨日1月8日朝8時頃、ベランダに干してあった女性の下着を窃取し、自転車で逃走。その後、自転車で逃げきれなかったため、路上に放置、徒歩にて再び逃走。あなたの自転車ですよね。　　（HERO）

(32) 東十条：外科医であることは、彼女から聞きました。ご出身が慶明大なら、榊原名誉教授、ご存じですよね。

欧　介：ああ、ええ。知ってます。知ってます。あの先生には研修員の頃、お世話になりました。　　（やまと）

(33) 和美 ： 幼なじみって言ったよね。彼女。

薫　 ： おう。　　（バ）

(34) まり子 ： 吉倉さん、今日もですか。本当にお仕事ですよね。

弥生 ： すいません。どうしても抜けられなくて。

まり子 ： 本当に7時までに迎えに来れるんですか。大丈夫ですよね。　　（FOR）

(35) 麻美 : 美香さ、アメリカ、行ってみたいんだよね。　　(神様)

예문(28)에서 桜子의 미모에 대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아름다웠냐는 男1에 이어지는 男2 의 發話는,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어스가 된 것 아니겠느냐며 마치 桜子의 생각도 자신의 생각과 동일할 것이라는 어조를 띠고 있다. 예문(29)에서 父는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으로 가려는 딸 和美에게 마침내 유학을 허락하는 의미로 어머니의 유품을 건네준다. 이모 美知를 통해 유품을 건네 받은 和美는 그 유품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결혼선물로 줬던 반지가 맞는지에 대해 이모 美知에게 확인하고 있다. 예문 (30)에서 雨宮는 새로 오게 된 검사 久利生의 검사답지 못한 옷차림을 보고, 첫날이기 때문에 青森에서 곧장 오느라 그런 복장으로 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실에 대해 확인을 바라고 있다. 예문 (31)에서 雨宮는 베란다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남자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한 후 용의자의 자전거가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본인에게 확인을 하고 있다. 예문 (32)에서 東十条는 欧介가 慶明 의과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을 듣고 그렇다면 의과대학 교수인 榊原교수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欧介에게 榊原교수에 대해 묻고 있다. 예문 (33)에서 和美는 전에 薫가 彼女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소꿉동무였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薫에게 다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예문 (34)에서 보육원 교사인 まり子는 弥生가 자꾸 아이를 제시간에 데리러 오지 않자, 매번 늦어지는 것이 정말로 일 때문인지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하고,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과 동시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 예문 (35)에서 麻美는 평소 美香가 미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온 것처럼 美香의 의향에 대해 확신을 갖고 美香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 예문 (28)-(35)에서 「よね」의 意味機能을 살펴 본 바, 위의 경우들에 서 공통적인 점으로, 發話의 내용에 있어서 情報的으로 優位에 있는 話者

가 확신을 갖고 聴者에게 그 사실에 대한 확인 또는 자신의 생각에 동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高大坤(2004)[25]가 설명하고 있는「よね」의 機能 중에서 「확인, 동의 요구」의 機能을 하는 「よね1」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2-2-3-2. 「よね2」의 考察

다음으로「화자의 사고, 판단 표명」을 나타낸다고 하는「よね2」의 意味機能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6) イサム : ちょっと。寄っていかない?

真 生 : 寄って行くって、どくに?

イサム : そりゃ、決まってんじゃん。また。

真 生 : やめとく。

イサム : なんでよ。

真 生 : 今日さ、麻美と服、見に行く約束しちゃったんだよね。 (神様)

(37) 弥生 : 幸子さんこそ、恋人、いないんですか。

幸子 : いない、いない。私は今は仕事が恋人ってとこかな。徹ってさ、ちょっと無神経なとこ、あるんだよね。男と女とか仕事と遊びとか、こうラインがないんだよね、あいつは。でもそこがいいとこなんだ、あいつの。 (FOR)

25) 高大坤(2004) 前掲書 p.124

(38) 薫：ほら、俺だって、生まれて来る子供のために俺もいつかはしなきゃなんないわけだし。だから、聞きたいんですよね。

父 ：そう言われてもな。　　(バ)

(39) 桜子 ：その最後の日に、東十条さんにお別れを言ってきました。

まり子 ：そう。

桜子：これですべて失って、ゼロになりました。こんなことになっちゃうなんて、本当に間抜けで笑っちゃいますよね。 私、なにやってたんだろう。　(やまと)

(40) 弁護士 ：だったら、ちゃんと理由を言ってよ。

久利生 ： 理由? 一晩でなんでこんなに証言が変っちゃったのかなとおもってさ、ちゃんと調べたいんだよね。　(HERO)

예문 (36)에서 어디에 들렸다 가자는 イサム에게 真生은 麻美와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麻美와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은 イサム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로, 真生은 イサム에게 어떤 확인이나 공감을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단지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예문 (37)에서 幸子는 弥生와 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幸子는 오랜 기간 徹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좋아해 왔기 때문에 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弥生는 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弥生에게 동의나 공감을 요구한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단순히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예문 (38)에서 薫는 자신과 和美의 결혼식이 있는 날, 和美의 출산으로 식이 무산되자,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동안, 그 날 축사를 해주기로 했던 和美의 父에게 듣지 못했던 축사를 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듣고 싶다고 자신의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상대에게 자신의 發話에 대한 동조를 구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문 (39)에서 桜子는 자신이 가난하게 커온

것에 대한 혐오감으로 오로지 돈 많은 남자만을 상대로 이제껏 사치와 허영심으로 살아왔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남자를 만난 후 모든 걸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허탈한 심정을 말하고 있다. 자신의 심경에 관한 부분으로 상대방에게 말은 하고 있지만,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털어 놓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문 (40)에서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는 사람을 구류(拘留)하려고 하는 검사 久利生에게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해달라고 한다. 그에 대해 久利生는 하룻밤 사이에 말을 바꾸는 것을 의심하고 다시 조사해보고 싶은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또한 자신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聽者의 반응을 바라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의 예문 (36)-(40)에서「よね」의 意味機能을 살펴 본 바, 앞에서 살펴본「확인, 동의」機能과는 달리, 話者가 發話 내용에 대해 聽者의 확인이나 동의 등, 聽者의 어떤 반응을 바라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話者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 판단, 감정 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高大坤(2004)[26]가 설명하고 있는「よね」의 機能 중에서「화자의 사고, 판단 표명」의 機能을 하는「よね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2-2-3-3. 「よね1」과「よね2」의 意味 機能 比較

앞 절에서 「よね1」과 「よね2」각각의 意味機能에 대해 살펴보았다.

「よね1」과「よね2」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高大坤(2004)[27]이 설명하고 있듯이「화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발화가 화자 자신의 판단, 사고의 결과

26) 高大坤(2004) 前揭書 p.124
27) 上揭書 p.122

임을 나타낸다」라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よね1」과「よね2」의 意味機能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よね1」은「확인, 동의 요구」의 機能을 하고 있고, 「よね2」는「화자의 사고, 판단표명」의 機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聽者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よね1」「よね2」의 차이에 대한 현상은 李知映(1997)에 의하면 스포츠 중계의 해설자와 아나운서의 대화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스포츠 중계에 있어서 해설자라는 역할은 해설자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눈앞의 시합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해설자들은 중계를 하고 있는 스포츠를 과거에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는 선수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해설자의 發話는 확실성이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굳이 직접 체험의 경험이 없는 듣는 이인 아나운서에게 同意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자가 사용하는 「よね」는 대부분이 聽者인 아나운서에게 특별히 同意를 구하고 있지 않는 「よね2」의 機能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아나운서의 대부분은 중계하는 스포츠에 직접경험이 없는 사람들로써 경기에 대한 자신의 判斷에 대해 어느 정도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불확실함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경험을 지닌 聽者인 해설자에게 자신의 判斷과의 同意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나운서의 대부분이 聽者의 대답 혹은 반응을 요구하는「よね1」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28]

28) 李知映(1997) 「終助詞의 意味機能에 관한 비교 연구」 啓明大學校 大學院 pp.37-38

그리고 다음의 예문들을 들어 그 차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41) もう、 しまった、 しまったばかり、 やっぱり自分がやろうということは、 できなかったらやっぱり自分のプレーを逆に考えたりしますからね。 だから、 コントロールが悪くなるのよね。 (RKB)

(42) 今もカーブでしたよね。 (RKB)

(43) ただし木村は切れのいい玉をなげますよね。 (RKB)[29]

위의 예문에 관한 李知映(1997)[30]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41)에서 話者인 해설자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선수의 상황에 대해 굳이 아나운서의 반응이나 대답은 기대하지도 않은 채, 자기 자신의 判斷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よね」는 「よね2」라 할 수 있다.」

「(42)에서 話者인 아나운서는 자신의 判斷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判斷에 대해 해설자가 同意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よね」를 사용하고 있다. (43)에서는 話者인 아나운서도 날카로운 볼이란 것을 認識하고는 있으나, 직접 경험을 지닌 해설자에게 실례가 되지 않기 위해 同意를 구하려는 意味에서 「よね」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아나운서가 사용하는 (42)(43)와 같은 「よね」는 聽者의 대답 혹은 반응을 요구하는 「よね1」이라 할 수 있다.」

29) 李知映(1997) 前掲書 pp.37-38「RKB프로야구오픈전(1997년3월2일)을 文字化한 것」재인용
30) 李知映(1997) 前掲書 pp.37-39

이상에서 살펴 본 위의 例에는, 확실히「よね1」와「よね2」의 意味機能의 차이가 대비적으로 비교되어, 명확하게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よね1」와「よね2」의 意味機能이 어느 한쪽의 機能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명확히 구분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44) 久利生 : え、これは?

警 官 : 防犯ブザー。私も持ってるよ。これさ、あの辺さ、もうすごいチカン、多くてさ。怖んだよね。

久利生 : ありそうだよね。どうやって使うの? (HERO)

(45) 父 : あ、そうそう、ニース。

司の父 : あ、ニースですか。

父 : あのう、確かフランスの高級リゾート地ですよね。地中海の魚はうまいです。今の時期ですとね、そう、シタビラメ。 (やまと)

위의 예문 (44)에서 警官은「防犯ブザ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변에 치한이 많아서 무섭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무섭다」라는 사실은 일단 話者 자신의 감정이긴 하나, 聴者인 久利生는 그러한 사실에 관해 무서워 할 수도 있고 반면, 개인적으로 무서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話者의 입장에서도 聴者에게 확인이나 동의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다거나 하는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만일 聴者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동조해 준다면, 그 경우의 話者의 「よね」는「よね1」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만일 聴者는 話者와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경우의 話者의 「よね」는 단순히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よね2」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문 (45)에서 (桜子의) 父와 司의 父는 프랑스의「ニー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桜子의) 父가 말하는「

ニース」가 프랑스의 고급 리조트라는 사실에 대해, 司의 父가 그 곳을 가 본 적이 있다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 줄 수 있지만, 만일 司의 父가 그 곳을 가 본적이 없다면 話者의 發話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話者의 發話에 사용되고 있는 「よね」역시 聽者에게 확인이나 동의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다거나 하는 어느 한쪽의 機能을 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よね1」과「よね2」의 意味機能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表 3〉 「よね1」과「よね2」의 意味機能 차이 比較

「よね1」意味機能	「よね2」意味機能
發話內容에 대해 話者가 聽者의 확인 또는 동의를 요구	發話 內容에 대해 聽者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話者의 意思, 感情表明

第 3 章 「よ」・「ね」와「よね」의 意味比較

앞에서「よ」와「ね」의 意味機能과 「よね」를 분류하여 각각의 意味機能과 그 차이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よ」「ね」가 각각「よね1」,「よね2」와 意味機能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よ」와「よね1」「よね2」

먼저「よ」와「よね1」과의 意味機能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李知映(1997)[31]은「「よ」는 듣는 이의 情報 혹은 知識 부족」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에 반해,「「よね1」은 말하는 이 자신의 정보 혹은 지식 부족」한 경우에 사용되어 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46) a. 久利生 : 朝倉さんと顔を会わせたのは、逮捕された2月13日だけですよね。
(HERO)
b. 久利生 : 朝倉さんと顔を会わせたのは、逮捕された2月13日だけですよ。

(47) a. 久利生 : 犯人、吉田君なんですよね。 (HERO)
b. 久利生 : 犯人、吉田君なんですよ。

예문(46a)는 화자인 久利生가 聴者인 綿貫 전무에게, 綿貫전무가 朝倉의 얼굴을 보았던 날짜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聴者 자신은 알고 있는 사

31) 李知映(1997) 前掲書 p.48

실이지만, 話者는 알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聽者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46b)와 같이「よね」文을 「よ」의 文으로 바꾸어 보면, 話者는 자신의 情報에 대해 聽者보다 확실성을 갖게 되어 情報의 중심이 話者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마치 날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聽者에게 話者가 자신의 확실성 있는 情報를 전달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 되어 버린다. 예문 (47a)에서도 話者는 범인이 吉田라는 사실에 대해 聽者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에게 조금 부족한 情報에 대해서 확인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47b)와 같이 「よ」의 文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話者는 범인이 吉田라는 사실에 대해 확실성을 갖고 發話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즉 話者보다 聽者에게 있어서 情報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よ」는 發話 內容에 있어서 聽者의 情報가 부족하거나 혹은 情報가 불확실할 때 사용되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고,「よね1」은 發話 內容에 있어서 話者의 情報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よ」와 「よね2」의 意味機能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金星禮(1998)[32]는「よ」에 대해서는「말하는 이는 확실한 자기 의사 전달을 표명한다」라고,「よね2」에 대해서는「자기의 주장을 전달하되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 다음의 예를 보자.

(48) a. 和美：そしたら、母さんに会いたくなって。それで母さんのお墓の前で、またいろんなこと、考えて。そしたら、そしたらね、そしたら、やっぱり引っかかってるんだよね。 私の中ですごく。 (バ)

b. 和美：そしたら、母さんに会いたくなって。それで母さんのお墓の前で、またい

32) 金星禮(1998) 「종조사 「よ」「ね」「よね」의 의미에 관한 연구」 東亞大學校 大學院 p.55

ろんなこと、考えて。そしたら、そしたらね、そしたら、やっぱり引っかかってるんだよ。 私の中ですごく。

(49) a. 幸子：あのさ、私、見ちゃったんだよね。 ほら、ゼットコースターのことでもめてる夜。 (FOR)

b. 幸子：あのさ、私、見ちゃったんだよ。 ほら、ゼットコースターのことでもめてる夜。

위의 예문 (48a)에서 和美는 자신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혼란스러워 하던 나머지 가족들 몰래 돌아가신 엄마의 무덤을 찾아갔고, 和美를 찾아 온 薫에게 자신의 심경에 대해 털어 놓고 있다. 그런데 「よ」의 文으로 바꾸어 놓은 (48b)의 文과 비교해 보면, (48a)의 예문 보다 「よ」가 부가된 (48b)의 文이 話者의 感情을 좀더 강하게 表明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49a)에서 幸子는「ゼットコースター」일로 회사에 문제가 있었던 날 밤, 弥生가 薫를 걱정하여 회사에 왔던 것을 본 사실을 薫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話者 자신의 意思를 表明하는「よね2」의 機能을 하고 있는 것으로, (49b)처럼 「よ」의 文으로 전환 시켜보면, 話者가 자신의 意思를 전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전달하는 태도에서 「よね2」보다 「よ」의 文쪽이 좀더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表出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よ」와「よね1」과「よね2」의 意味機能의 차이점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表 4〉「よ」와「よね1」・「よね2」의 意味機能 比較

	意味機能 比較		意味機能 比較
「よ」	聴者쪽의 情報가 부족하거나 불확실	「よ」	話者가 강하게 자신의 意思 伝達
「よね1」	話者쪽의 情報가 부족하거나 불확실	「よね2」	話者가 단순히 자신의 意思 伝達

3-2. 「ね」와 「よね1」「よね2」

다음으로「ね」와 「よね1」「よね2」중에서 「ね」와「よね1」의 意味機能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金星禮(1998)[33]는 「ね」는「말하는 이가 어느 정도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고, 반면「よね1」은「말하는 이가 자신의 發話에 대한 상대방의 공감을 기대하고「ね」보다는 發話 命題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高大坤(2004)[34]도「동의를 구하거나 확인하는

33) 金星禮(1998) 前揭書 p.62

「ね」는 「よね」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그러나 뉘앙스에는 차이가 있다. 「よね」는 「ね」에 비하여 화자 자신의 의견과 기억에 불확실한 점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 그 때문에 확실해서 이의가 발생할 수 없는 사항의 경우, 「よね」는 부적당하다」라고 말하며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50) a. 桜子 : 夜な夜なお盛んですこと。あ、それからあの変なカメレオンなんですけど、あれはあなたなんですよね。 (やまと)

b. 桜子 : 夜な夜なお盛んですこと。あ、それからあの変なカメレオンなんですけど、あれはあなたなんですね。

(51) a. 久利生 : しかも額から血を流してるわけですから、そんなわざわざストレッチャーなんかに乗せませんよね。 (HERO)

b. 久利生 : しかも額から血を流してるわけですから、そんなわざわざストレッチャーなんかに乗せませんね。

위의 예문 (50a)에서 桜子는 자신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던 날 밤, 밤새 옆에서 간호해줬던 欧介가 병실에 두고 간 カメレオン 장난감에 대해서 당신이 두고 간 것이냐고 묻고 있다. 그런데 (50b)의「ね」의 文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ね」의 文쪽이 「よね」의 文보다, 話者가 자신의 發話에 확신을 갖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51a)에서 久利生는 간호사인 상대방에게 이마를 다쳐서 피가 흐르는 8개월 된 아이를 누군가가 안고 병원에 왔는데, 그대로 안고 가지, 일부러 ストレッチャー에 태워서 병원 안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는 간호사이므로 검사인 久利生보다는 병원 생활에 대해 더 많은 情報를 가지고

34) 高大坤(2004) 前揭書 p.123

있을 것이므로, 久利生는 자신의 發話에 대해 확신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데 (51b)처럼 「ね」의 文으로 바꾸어 보면 (51a)에 비해, 話者가 자신의 發話에 대해 확실함을 갖고 聽者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ね」와「よね2」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둘의 차이에 대해서 李知映(1997)[35]은 「ね」는「말하는 이가 단순히 자신의 思考, 判斷 표명」의 機能을 하는데 반해 「よね2」는「말하는 이가 자신의 注意를 한번 더 喚起시키면서 思考 判斷 表明」하는 機能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2) a. みゆき : ああ、 しつこいの<u>よね</u>。
弥 生 : ええっ。
みゆき : 別れた亭主。まいを私立の小学校に入れろってさ。 (FOR)

b. みゆき : ああ、 しつこいの<u>ね</u>。
弥 生 : ええっ。
みゆき : 別れた亭主。まいを私立の小学校に入れろってさ。

(53) a. 和美 : ごめんなさい。こんな大げさなことになっちゃて。私がいけないんです<u>よね</u>。 ちゃんと断らなかったから。 (バ)

b. 和美 : ごめんなさい。こんな大げさなことになっちゃて。私がいけないんです<u>ね</u>。 ちゃんと断らなかったから。

위의 예문 (52a)에서 みゆきは 이혼한 전 남편이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라고 재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끈질기다고 상대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한 전 남편이 그러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인 弥生는 알 수 가 없는 상황으로, 여기서 「よね2」는 話者가 자신의 영역에 있는 情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聽者에게 전달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예문 (52b)처럼

35) 李知映(1997) 前揭書 p.52

話者의 意思를 나타내는 機能을 하는「ね」의 文으로 바꾸었을 때와 비교해 보자면, (52b)는 話者가 전 남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전달하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는데 비해, (52a)는 자신의 판단을 더 강조하고 있다. 예문 (53a)에서 和美는 처음에 가정이 있는 줄 모르고 만났던 남자와의 지난 관계를 자신의 아버지가 알게되고 아버지가 그 남자를 찾아가 화를 내자, 잘못은 제대로 거절하지 못한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53b)처럼「ね」文으로 전환 시켜 보면, 그 發話 內容에 대해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약해지고, 가볍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ね」와「よね1」과「よね2」의 意味機能의 차이점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表 5〉「ね」와「よね1」・「よね2」의 意味機能 比較

	意味機能 比較		意味機能 比較
「ね」	話者가 發話 內容에 대해 확신을 갖음	「ね」	話者가 가볍게 자신의 意思 傳達
「よね1」	話者가 發話 內容에 대해 불확실	「よね2」	話者가 자신의 意思를 강조하며 傳達

第 4 章 結論

본고에서는 日本語 終助詞 「よ」「ね」그리고「よね」가 現代 口語體에서 어떤 意味와 機能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考察 해 보았다. 따라서 실생활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日本의 現代 드라마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よ」「ね」「よね」가 終助詞로서 실제로 그 사용빈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日本語 學習者들이 그러한「よ」「ね」「よね」의 意味機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005年 9～10月에 걸쳐, 朝鮮大學校 晝間・夜間 日本語科 3・4學年 50名 및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本語敎育 專攻 大學院生 10名을 대상으로 「よ」「ね」「よ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學習者들이「よ」「ね」「よね」의 意味와 機能에 대해 정확히 認識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의 感으로만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よね」가 실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よね」에 대한 認識이 많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よ」와「ね」의 意味와 機能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よね」를 분류하여 그 意味와 機能에 대해 자세하게 比較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본다.

먼저「よ」는 情報의 優位가 話者쪽에 있고, 話者가 聽者에게 자신이 말하고 싶은 發話 內容을 강하게 アピール하며, 그 發話를 더욱더 확실하게 表出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ね」는「發話 內容에 대해 話者가 聽者에게 확인을 要求」「發話 內容에 대해 話者가 聽者에게 동의를 要求」「發話 內容에 대해 話者의 意思를 表明」「話者가 發話 순간 알게된 사실을 表出」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위의「ね」의 意味機能 중에서「發話 內容에 대해 話者가 聽者에게 확인을 要求」하는 경우와「發話 內容에 대해 話者가 聽者에게 동의를 要求」하는 경우를 區別 할 수 있는 方法을 제시하였다. 즉,「同意要求」의「ね」에 있어서는, 話者가 聽者의 동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聽者

의 應答述語에 同意表示를 나타내는「ね」를 붙여주었을 때 자연스럽고, 반면「確認要求」의「ね」는 話者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聽者의 情報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同意表示를 나타내는「ね」를 붙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よね」의 경우 그 의미기능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였다. 聽者의 반응을 기준으로 나누고, 그 기준에 의한 意味機能을 검토한 결과, 發話 內容에 대해 話者가 聽者의 확인이나 동의를 요구하는 기능을 할 때는 「よね1」으로, 發話 內容에 대해 聽者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話者의 사고 또는 감정을 표명하는 기능을 할 때는 「よね2」로 그 意味機能이 구분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よ」・「ね」와「よね」에는 어떤 意味機能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認識하고, 그에 따라 각각의 意味機能을 비교 고찰하여 보았다. 發話 內容에 있어서, 「よ」는 聽者 쪽의 情報가 부족하거나 불충분 할 때 사용되어지고, 「よね1」은 話者 쪽의 情報가 부족하거나 불충분 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또 「よ」와「よね2」에서는, 「よ」가 話者가 강하게 자신의 의사를 聽者에게 전달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고, 「よね2」는 話者가 가볍게 자신의 의사를 聽者에게 전달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ね」와「よね1」「よね2」의 意味機能을 살펴본 결과 「ね」는 話者가 發話 內容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경우에 사용되고, 그에 반해 「よね1」은 話者가 發話 內容에 대해 불확실할 때 사용되어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ね」와「よね2」에서는 「ね」는 話者가 자신의 의사를 가볍게 전달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よね2」는 話者가 자신의 의사를 강조하며 전달하는 경에 사용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口語體에서의 日本語 終助詞 「よ」「ね」「よね」를 話者의 發話 태도와 관련지어, 그 文을 전달하는데 있어서의 意味機能의 차이를 比較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よ」와「ね」가 從來의 연구 해석으로

는 설명이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意味機能을 보충하였으며, 「よね」가 갖는 공통적인 意味機能과 상반적인 意味機能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よ」「ね」「よね」의 意味機能을 고찰하는 데에, 그 중심을 두고 있으나, 「よ」와 「ね」는 그 쓰임의 범위가 넓고, 「～わよ」「～かね」「～わよね」등 다른 여러 終助詞와도 자주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今後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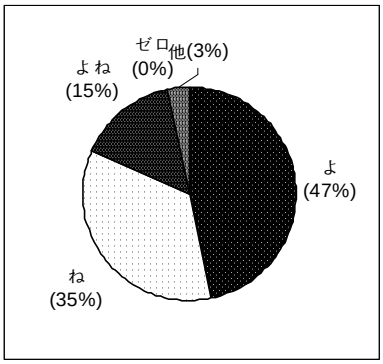
＊ 別紙 1

※ 朝鮮大學校 주・야간 日本語科 學生 및 教育大學院生 60名에 대한 調査結果

場面*1.* よね

安代 ： 全然遊びに来てくれないんだから。
　　たまには顔見せて*(____)*。
博子 ： すみませ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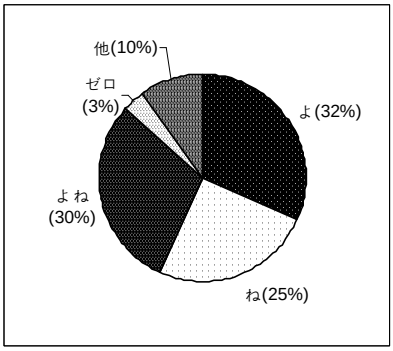
a. よ(28)　b. ね(21)　c. よね(9)　d. ゼロ(0)　e. 他(2)



場面*2.* ね

「でもとにかくそういうのが好きなんだ*(____)*?」
彼は言った。
「別に好きじゃないよ」と僕は言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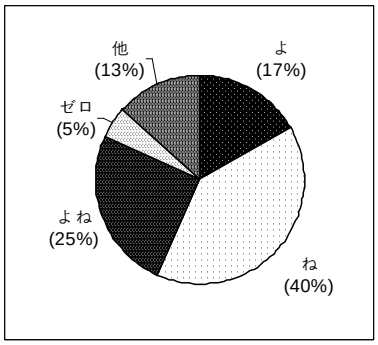
a. よ(19)　b. ね(15)　c. よね(18)　d. ゼロ(2)　e. 他(6)



場面*3.* よ

「今頃の北海道はすてき*(____)*。
観光客も少ないし、 気候も良いし、
羊だってみんな外に出てるわ。 良いシーズンよ。」
「だろう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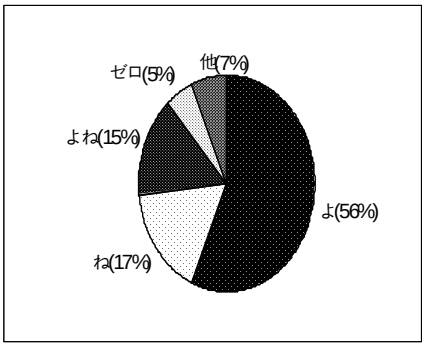
a. よ(10)　b. ね(24)　c. よね(15)　d. ゼロ(3)　e. 他(8)



場面*4.* よね

英順 ： だから、ちょっと触られたくらいで、大騒
(おおさわ)ぎすることないわ*(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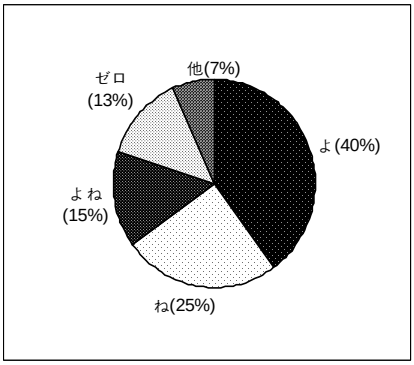
a. よ(34)　b. ね(10)　c. よね(9)　d. ゼロ(3)　e. 他(4)



場面*5.* ね

淳子は、寂(さび)しそうにため息(いき)をついて、
ぼつりと言った。
「…係長のこと、 けっこう好きだったの*(____)*。」
「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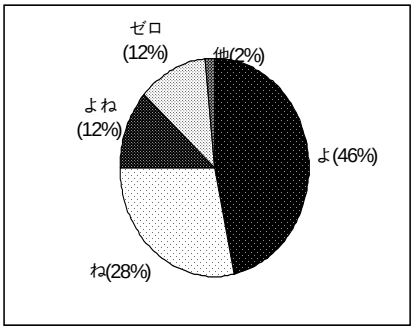
a. よ(24)　b. ね(15)　c. よね(9)　d. ゼロ(8)　e. 他(4)



場面*6.* よ

「僕のためにわざわざ薄味(うすあじ)でつくったの?」
「まさか。 いくらなんでもそんな面倒(めんどう)なことし
ないわ*(___)*。 家はいつもこういう味(あじ)つけよ。」

a. よ(28)　b. ね(17)　c. よね(7)　d. ゼロ(7)　e. 他(1)



用例出典

ドラマ　『FOR YOU』(全11回)　1995年 1月 9日～3月 20日 放送.フジテレビ

ドラマ　『バージンロード』(全11回) 1997年 1月 6日～3月 17日 放送.フジテレビ

ドラマ『神様、もう少しだけ』(全11回) 1998年 7月 7日～9月 22日 放送.フジテレビ

ドラマ　『やまとなでしこ』(全12回) 2000年 10月 9日～12月 18日 放送.フジテレビ

ドラマ　『HERO』(全11回) 2001年 1月 8日～3月 19日 放送. フジテレビ

参 考 文 獻

(国内文献)

平吉孝典(1995), 「終助詞「ね」と「よ」の機能と用法に関する考察」, 韓国外国語大学校 教育大学院

蒋真我(1997), 「日本語의 文末推量表現에 관한 研究」, 東亜大学校

李知映(1997), 「終助詞의 意味機能에 관한 비교 연구」, 啓明大学校 大学院

金星禮(1998), 「종조사「よ」「ね」「よね」의 의미에 관한 연구」, 東亜大学校 大学院

崔 賢(1999), 「現代 日本語에 있어서 終助詞「よ」「ね」「よね」의 研究」, 東国大学校 大学院

(国外文献)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時枝誠記(1950), 『日本語文法口語編』, 岩波書店

徳田政信(1982), 『日本語文法論』, 風間書房

高橋太郎他(1997),『日本語の文法』, 正文社

南不二男(1982), 『現代日本語の構造』, 大修館

仁田義雄(1991), 『日本語モダリティと人称』, ひつじ書房

橋本進吉(1950), 『国語法研究』, 岩波書店

益岡隆志(1991), 『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益岡隆志・仁田義雄(1991), 『日本語の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白川博之(1992), 「終助詞「よ」の機能」『日本語教育』, 77号

森田良行(1971), 『基礎日本語1・2』, 角川書店

陳 常好(1987), 「終助詞-話者と聞き手の認識のギャップをうめるための文接辞-」『日本語学』6-10, 明治書院

神尾昭雄(1990), 『情報のなわ張り理論-言語の機能的分析』, 大修館書店

高大坤 (2004), 「종조사 「ね」「よ」의 기본적인 기능」『漢陽日本學』 제 11・12집 漢陽日本學會

田窪行則(1997), 『視点と言語行動』, くろしお出版

川森雅人(1991), 「終助詞と認知様相」『情報処理学会』

森山貞郎(1989),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おける聞き手情報-聞き手情報配慮非配慮の理論-」『日本語の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時枝誠記(1983), 『日本語文法文語編』, 岩波書店

山田孝雄(1936) 『日本文法概論』 宝文館

小 倉肇(1985) 「終助詞・間投助詞」 『研究資料日本文法-⑦助詞編(三) 助詞・助動詞辞典』 明治書院 p.242

上野田鶴子(1972) 「終助詞とその周辺」 『日本語教育』17 日本語教育学会

蓮沼昭子(1995) 「対話における確認行為-「だろう」「じゃないか」「よね」の確認用法」 『複文の研究(下)』 くろしお出版

宮島達夫・仁田義雄(1995) 「鄭相哲 -ネトダロウジャナイカ-確認要求型式-」『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上)』 くろしお出版

泉子・K・メイナード(2001) 「日本語文法と感情の接点ーテレビドラマに会話分析を応用してー」『日本語文法』1巻1号 2001年9月 日本語文法学会 くろしお出版

庵 功雄・高梨信乃・中西久実子・山田敏弘(2002) 『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J&C